

학원선교부 2011 가을학기 세미나



학원선교부 2011 가을학기 세미나가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정선여고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 이루어지는 만남에는 많은 사연들이 자리한다. 이번 가을학기를 여는 세미나는 청소년들과 만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인생의 감동자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코칭스태프로써 어떻게 자리해야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열었다. 그래서 첫째시간 전경호 목사(교육목회실천협의회)의 코칭특강을 통하여 영적지도자로서 자리하는 청소년사역자들

의 모습을 코치로서 어떻게 코디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율타리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타리밖 저너머에 멀리 있다고 여겨진 아이들, 학업을 중단하고 담장안에서 삶의 자리를 가지는 청소년들의 삶을 밀착해서 보고 많은 생각을 이어가는 둘째 시간, 이계성 목사(유두고 선교회)의 교정선교현장보고를 통하여 가정,사회,교회가 힘써 이루어야 할 신앙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거룩한 기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하여 고귀한 섬김의 손길을 펼치는 기도어머니들의 모습은 가을내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며 어느새 이슬머금은 낙엽이 되어 다음해 봄날 돌아날 새싹들을 위하여 소중한 거름으로 자리할것이다.

〈 청소년사역원 〉

다문화사역팀 여름 성경학교



2011년 8월 27일에 하남 다문화 어린이들 약 20여명과 주님의교사 다문화사역팀 교사 약 15명이 주님의 교회 영아부실에서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요’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외우며 항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애 더욱 많은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교사와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찬양과 율동을 새롭게 배우고 목소리와 몸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녁집회에는 다문화 어린이들과 갈멜산 사건을 본문으로 엘리야의 기도애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기도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교사와 1:1로 만나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회를 하였는데 다문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나누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문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회 후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문화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찬양함의 기쁨과 믿음으로 구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하남 다문화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 다문화 사역팀 이보승 전도사 〉

교회소식 이모저모

- 20Plus 베트남 해외선교



20Plus 젊은이공동체에 서는 9월 9일(금) 저녁부터 14일(수) 새벽까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 일대로 해외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빈롱 지역에서 집짓기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베트남에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극빈층이 많은 빈롱 지역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통해 두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추석을 어린이 명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데, 300명 가까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추석선물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에 빈롱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교회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공산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베트남 팀은 이번애 만난 영혼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길 간구할 것입니다.

〈 이정민 전도사 〉

- 20Plus 로비음악회



20Plus 브릿지(Bridge) 합창단은 25일(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로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브릿지 합창단은 20Plus 젊은이공동체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는데,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젊은이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로비음악회를 통해 브릿지 합창단은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음악회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 이정민 전도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信仰 共同體 (신앙 공동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이가 하나도 없더라. _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도 主(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인연을 소중히 여겨 더욱 돈독한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信仰 (신앙) : 神(신)을 굳게 믿어 그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일.

共同體 (공동체) :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하는 조직체(공동사회).

★信(믿을 신) : “인류의 총칭” 亻(人的 변형체. 사람인 변)과 “말이나 글”을 뜻하는 言(말씀 언)을 결합하여 『사람의 말에 있어야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

★仰(우리를 앙) : “인류의 총칭” 亻(人的 변형체. 사람인 변)과 “위”를 뜻하는 卩(높을 앙)을 결합하여 『사람은 높은 곳을 우러러 봐야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共(함께 공) : “많음”을 상징하는 卪(스물 입)과 工(두 손 공)을 합하여 『많은 일을 할 때에는 두 손이 함께 쓰인다』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同(한 가지 동) : “먼 곳”을 뜻하는 冂(멀 경. 멀경 몸)과 “모여들다”라는 뜻의 一(한 일)과 “말하다”라는 뜻의 口(입 구)를 결합하여 『멀리서 모여온 자들이 하는 말도 듣기를 측근의 말과 한가지로 여겨야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體(몸 체) : “뻐 또는 꽃꽂함”의 상징인 骨(뼈 골)과 “많고 두텁다”의 상징인 豐(풍년 풍)을 결합하여 『꽃꽂한 뼈대에 두터운 살이 덮인 것은 사람의 몸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
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_ 골 1:20

통 권 _ 제 290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10월 2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지구는 후손에게서 잠시 빌린 것

“지난 20세기는 소비의 시대였습니다. 바다의 40%가 육지에서 흘러나온 쓰레기들로 덮여져 있으며, 지난 30년간 지구 자원의 3분의 1을 소비했고, 해마다 그리스만한 면적의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07년 일회용 종이컵이 발명된 이래, 많은 물건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노트북 한 대를 만드는 데 그 무게의 4천배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소비 과잉을 낳아, 몇십 년 안에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의 일부이다.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미룰 일이 아닌 현실로 대두된 상황임을 일깨우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종이컵 하나, 점심시간에 빈 방에 켜 두는 전등 하나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만든다. 온실효과는 지구를 덥히고, 빙하를 녹이며, 숲의 사막화와 전 지구적 이상 기후를 유발한다. 이 모든 우울한 미래는 곧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다. “녹색사역팀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건, 능력에 합당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작은 일부터 가시적으로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사역팀의 팀장을 맡은 이종석 안수집사의 말이다.

녹색사역팀은 숲 살리기, 사랑의 녹색가게 운영, 시티 팜 트레이드(도시 농업 운동), 친환경 유기농 농가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계획, 시행하고 있다.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펄프용 목재 생산을 위한 벌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숲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작은 상자에 갖가지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시티 팜 트레이드 운동은, 자연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종석 집사는 말한다. 녹색팀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우선 교인 가정의 도시 농업으로 출발해서, 의식주 전반에 걸친 녹색 운동으로 전파하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까지 확산하고자 하고 있다.

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내년도 2천 그루 정도로 지원의 규모를 늘려 동참할 예정입니다. 사막을 살리는 길은 황사 예방 뿐 아니라 자연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참여한 녹색사역팀 장승수 안수집사의 전언이다.

곧 교회 내부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질 녹색가게 역시 녹색사역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의 실천 공간으로 기획하는 녹색가게는, 단순한 중고생활용품의 상설 교환 센터 뿐 아니라, 지역 환경 센터로, 또 녹색 소비 정보 센터로 다양한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녹색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녹색사역팀 활동의 추진 기금으로 활용되어, 교인 가정에 채소 화분을 보급하는 일과, 식품 사업 등에 충당될 예정이다. 녹색가게에서는 도서류, 의류, 유아용품, 신발, 가방, 체육용품, 주방용품, 잡화, 생활가전, 수공업품, 환경상품 등 사용가치가 있는 모든 중고 생활용품을 취급할 예정이며, 주님의교회 교인 뿐 아니라, 정신여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주님의교회의 사역들

자연 사랑은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기계 문명의 확산에 따라 도처에서 숲이 사라지고 바다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교회에서 땀흘리고 있는 환경 보호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 편집자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라는 말씀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와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 땅과 이 생명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할 터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창 9:16)라는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대해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인류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반도에 닥친 지난 겨울의 오랜 추위와, 이번 여름의 이상 기후들, 일본 도후쿠 지방을 덮친 쓰나미의 엄청난 피해는, 자연의 소중함에 무심했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0년, 주님의교회에 녹색사역팀 신설

자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이런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0년에 녹색사역팀을 신설했

황사 진원지에는 나무를 심고, 우리 이웃에는 녹색가게를



해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진원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사역 또한,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오랜 뒤에는 멋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서 5월 2일까지 황사를 막는 사람들(황막사)라는 단체에서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 숲 조성을 위한 묘목 2만 그루를 심었는데, 주님의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600그루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했다. 황막사는 13년째 황사 지원지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단체이

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형, 인근 송파구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자연 사랑의 또다른 길, 숲유치원의 어린이들

그러나 자연 사랑의 정신이 비단 녹색사역팀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송파구청에서 위탁받아 주님의교회에서 운영하는 가락본동 어린이집의 ‘숲유치원’반은 또 다른 시각에서 환경 친화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일 터이다. “숲유치원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금공원 숲속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책과 같은 교육 자료가 없고,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인데도,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과 창의성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요.” 복지분과 어린이집 지원팀장인 송행근 안수집사의 말이다. 현재 20명 정도의 한 반을 운영중인데, 대기 인원이 많아 증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숲과 들판을 가까이 할 때 저절로 마음 속에 자라는 것 아닐까요?”라는 송행근 집사의 반문은, 환경 문제 해결의 진정한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향존직선거>
-공동의회 : 10. 2(주일) 1부예배후
-투표 : 공동의회후 정신학원 본관
<새가족환영회>-10.2(주일) 3:30

<추수감사절 썰나눔행사>
-접수 : 10.2~10.16 / 1층 안내데스크
<성인입교 및 세례교육>
-9.25~10.23 (매주) 오후 1:30~3:00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
-10.22(토) 오전 10:00~오후 3:00
<장애인 가을 성지탐방>
-10.8(토) 오전 9:30~오후 10:00

교제와 추억으로 가득했던 지난 6년 _ 신화식 목사부부 인터뷰

지난 2005월 부임한 신화식 부목사가 만6년이 되는 9월말 임기를 마치고 주님의교회를 떠납니다. 2011년 9월 18일 오후 3시, 곧 동해청운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신화식 목사를 만나, 지난 6년의 추억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 편집자

홍기협 편집장(이하 '홍' 이라 함) :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기를 마친 소감 부탁드립니다.

신화식 목사(이하 '신' 이라 함) : 주님의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선임 부목사를 담당하면서 담임목사로 가져야 할 여러 자질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홍 :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신 : 추억이 많지만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 있을 때 3개월 동안 전교인과 함께 태안을 방문해 기름을 닦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목회의 관심사는 복지 분야인데, 주님의교회에서 3년 동안 복지 사역을 담당했던 그 시간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홍 : 아쉬웠던 점도 없지는 않았겠습니까?

신 : 선임 부목사가 중요하게 담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간에,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



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 준비했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역이 여러 사정으로 끝내 무산된 것도 아쉬운 일 중 하나입니다.

홍 : 어떻게 동해 청운교회로 부임하게 되셨는지요?

신 : 동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한 지인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바로 기회를 주셨고 설교 후 청빙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홍 : 복지에 관심이 있다 하셨는데, 청운교회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요?

신 : 청운교회는 현재 청장년 합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가 50여명 정도 되고요. 아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목회의 기본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하나님

음을 교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선은 말씀과 기도예 전념한 후에 복지사역을 펼치고자 합니다.



홍 : 새 출발을 하시면서 각오가 남다르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신 : 단독 목회는 처음입니다. 부목사 10년보다 담임목사 1년이 더 힘들고 외롭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섬기며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탈진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리: 김상미 기자_borimqb@naver.com 〉

사랑의 '녹색가게'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녹색사역팀에서 사랑의 녹색가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녹색사역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의 자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녹색사역팀 팀장
이종석 안수집사_011-272-0324

녹색가게는 교회 공동체와 정신여중고교의 학생, 교사, 지역 사회와 함께, 재활용과 나눔의 미학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환경을 지키려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녹색가게의 꿈입니다.

녹색가게 운동의 정신

자원을 절약합니다.

지구 위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소중하게 아껴 씁니다.

쓰레기를 줄입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이 지구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연 깨끗하게 지킵니다.

다시 쓰고, 고쳐 씁니다.

고장 난 것은 고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씁니다. 버릴 것은 자원으로 재활용합니다.

씀씀이를 새롭게 익힙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 소비 실천의 방식도 새로 배웁니다.

환경을 지키고 경제를 살립니다.

환경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알립니다.



〈합줄함울〉에서는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복음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연재합니다. 이 기획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자취를 찾아,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번호에는 그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예수원’을 찾았습니다.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적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복음의 발자취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_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곳, 예수원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산 7번지 그곳을 가기 전에는 그곳은 아주 먼 곳이었다.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산 7번지’라는 주소도, 그곳이 결코 서울에서 가깝지 않은 곳임을 증명했다. 도시의 삶이 늘 그렇듯, 가지 못할 사정도 만만치 않았다. 출발하는 시간까지도 여장 꾸릴 여유가 없을 만큼 이런 저런 일들이 목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떠난 길이기도, 그곳은 더욱 멀어 보였다. 정선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일박을 했다. 새벽 다섯 시에 숙소에서 출발했다. 외롭고 쓸쓸한 태백의 새벽 국도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 안개뒤에서 문득 그곳이 나타났다. 예수원. 그곳은 생각보다 가깝게 있었다. 마치 일상의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원의 일과는 아침 여섯 시 정각, 종 대신 트럭 바퀴의 통쇠를 타종하는 소리로 시작한다. 아침 예배인 조도이다. 한 시간 동안, 시편, 구약, 신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한다. 인도자는 돌아가면서 맡으며, 은혜 받거나 깨달은 말씀을 자유롭게 나눈다. 점심 예배인 대도는 열두 시에 시작해 삼십분 동안 중보기도로 드린다. 저녁 예배는 일곱 시 삼십분에 시작해서 요일에 따라 찬양예배, 구역예배, 강의 등으로 드린다. 하루에 두 시간 삼십분 이상을, 시간의 십일조로 주님께 올리는 것이다. 예배를 전후해서 정해진 상차림으로 식사를 한다. 예수원 가족과 손님들은 예배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예배와 노동과 침묵 예수원 일과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노동과 침묵이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라는 성 베네딕도의 가르침이 대기도실과, 도서실에 붓글씨로 붙여져 있어 예수원의 정신을 웅변한다. 매일 예수원의 가족과 손님은, 아침 식사 후 작업회의를 거쳐 노동에 참여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 형제들은 배수로 보수공사와 나무 자르기를, 자매들은 전체 청소와 세탁을 나누어 했다. 예수원에서는 특별히 침묵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다. 점심 후 1시에서 2시까지 침묵하고, 소침묵시간인 밤 9시에서 10시까지는 작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으며, 10시부터 아침까지는 온전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안식한다. 예수원은 미국인이면서 중국에서 태어난 대천덕 신부와 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한 성 미가엘 신학원 학생들, 향동교회 신자들, 건축노동자들에 의해 1965년에 설립되었다.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되,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신자 생활의 세 가지 실험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 관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사회와의 관계를 실험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 ‘코이노니아’,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실험적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예수원’이라 지었다. 예수원의 건물들은, 숲과 하나가 되어 있다. 개울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마른 역새로 지붕을 얹은 예수원의 건물과 풍경은 그림책에 나오는 숲속 오두막처럼 몽환적이었다. 산비탈에 의지해서 한 채를 올렸고, 그 건물 옆에 이어서 다른 한 채를 올렸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열린 듯 닫힌 듯 계단과 통로가 있다. 비탈길을 올라가면 신자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또한 채가 들어서 있다. 이 모든 건물들의 공간은, 하나도 그저 비워진 곳 없이, 알뜰하고 아부지게 설계되어 있다.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빈 공간엔 방이 있고, 벽장을 열고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을 햇볕 아래 따뜻하고 정갈하다. 돌 틈에 자란 들꽃과 벽을 함부로 타고 오

른 담쟁이와, 가구와 문짝에 오래 묵어 지워지지 않는 손때마저도 정갈하다. 그 정갈함을 따라 건물들 옆으로 이어진 숲길로 접어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라고 씌어져 있는 십자가가 고즈넉이 우리를 맞는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음에 가슴이 울렁인다. 고개를 젖히니, 하늘 향해 가지런히 자란 소나무의 푸른 잎이 눈부시다. 숲 사이의 작은 공간마다 옥수수며 야채가 소박하게 자라고 있다. 숲길을 좀 더 따라 가자, 바위에 흰 글씨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레 25:23)”는 말씀이 적혀 있다. 또 다른 비문에 “토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하늘이 명령하신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대천덕 신부의 말이 적혀 있다. 예수원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의 본보기를 만들자는 그의 꿈의 실험장이었다.

모든 이는 주님 아래 ‘형제’와 ‘자매’ 이 정갈한 실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원에는 멀리서 30년이나 생활을 같이 해온 가족부터, 공동체 생활을 체험해보고자 단기수련을 들어온 젊은 학생까지, 10여 가족이 살고 있다. 어떤 형제는 인근 산야에 자라고 있는 다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어떤 자매는 흙으로 작은 소품을 빚어 도자기를 굽는다. 다른 형제는 삼수령 고지 위에 조성한 목장에서 70여 마리의 소를 방목하고 있다. 또 어떤 형제는 부부가 ‘생명의 강’ 대안학교의 살림을 맡고 있다. “예수원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원에서 결혼을 했고, 예수원에서 아이 다섯을 낳았습니다.”고 말하는 이 형제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태백의 척박한 골짜기에 내린 대천덕 신부의 일화를 끝도 없이 털어놓는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이의 호칭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가슴에 ‘아처 형제’라는 이름표를 붙이시더니, ‘신부님’이라고 부르자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이름표를 가리키며 ‘아처 형제’라고 부를 때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은 저의 아버지뻘 되셨는데, 그런 분에게 형제라고 부르기가 쉬웠겠습니까?” 예수원의 구성원에겐 모두 동등한 권리가 있고, 의견도 평등하게 반영된다. “비록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더라도, 공동회에서 통과된 의견을 대천덕 신부님은 존중했습니다. 때로,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주장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분께 맡길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야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님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들의 생활은, 소박하다. 예수원 가족들의 얼굴은 맑고 평안해 보였다. 손님에게 안내하는 글을 보니, ‘이성 교제는 금지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안내를 맡은 예수원 가족이 말한다.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에게 마음이 가거든, 오래 혼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뒤, 공동회의 어른에게 비밀리에 의논을 청해야 합니다. 공동회의 어른은 그 형제 자매가 서로 어울리는지 기도로 묻고, 그 자매의 의견을 들읍시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예수원 가족에게 알립니다. 만일 이때 이의가 있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원이었다. 그래야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자유,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침묵과 기도와 평화가 있는 곳, 예수원. 반나절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입구를 나서자, 가을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일행을 반겼다. 뒤를 돌아보니, 푸른 숲 길은 그늘 아래 예수원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정지된 채, 마치 꿈이었던 듯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 김희영 기자 hykim62@gmail.com 〉

‘예수원’을 안내합니다.

예수원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으며, 따로 삼수령 수련원과 목장을, 또 대안학교인 ‘생명의 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수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jabbey.org>